

[ 기획 ]



지난해 광주시립미술관에서 열린 '아트북 만들기'에 참여한 용아지역아동센터 아이들이 책을 만들고 있다.



지난해 열렸던 극단 '도방'의 연극 무대는 '문화 바우처'를 통해 참가한 청각 장애인을 위해 수화 통역사가 함께 공연을 진행했다.



지난해 실시한 문화바우처 프로그램 중에서 가장 많은 관객을 동원한 뮤지컬 '사랑 하면 춤을 춰라.'

光州日報 연중 캠페인  
함께 할수록 커지는 문화 나눔  
Hand in Hand

(3) 문화 바우처 현황·개선점

신나는 예술 여행... '감동'을 나눈다

지난해 12월 광주 용아지역아동센터에 다니는 아이들은 광주시립미술관에서 열린 '아트북 만들기 프로그램'에 참여했다. '문화 바우처'를 통해 참가한 아이들은 직접 책을 만들어 보면서 즐거운 추억을 만들었다.

광주문화예술진흥위원회(이하 문진위)가 사업을 진행 중이다. 2006년 사업비는 8천 300만원(1인당 3만원)이었으며 2007년에는 8천 700만원(1인당 5만원)으로 사업을 진행했다.

우가 많아 프로그램 확보에 애를 먹고 있다. 또 현재 예산을 지원하고 있는 복권기금 운영 규정상 수혜자들의 요구가 많았던 '브로드웨이 42번가' '캣츠' 등 외국 라이선스 공연은 혜택을 받을 수 없었던 점도 아쉬웠다.

특히 시각 장애인이나 청각 장애인 등 '특화된 프로그램'이 필요한 계층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에도 힘을 쏟아야 한다는 지적이다. 지난해 문진위가 시각 장애인들을 위해 처음 시도한 '수화 통역 연극'은 시도 면에서는 의미가 있었지만 관람 대상과 작품 선정 등에서 아쉬움을 남겼다.

"아이들이 미술 시간과는 다른 색다른 경험을 하면서 참 즐거워 하더라고요. 지난해 뮤지컬 '피노키오'와 '마리아 마리아'를 봤는데 TV를 통해서나 노래하고 춤추는 뮤지컬을 봤을 뿐이지 진짜 뮤지컬 관람은 난생 처음이라 모두 행복했죠."

지난해 진행된 프로그램은 뮤지컬 '점프'와 영화 '디워' 등 모두 63개였다. 장르별로는 뮤지컬과 영화가 16편으로 가장 많았다. 계층별로는 전체 6천500여명 중 아동이 3천 146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장애인이 998명으로 뒤를 이었다. 장애 장르별로는 정신 지체·발달 장애가 483명으로 호응도가 가장 높았고 지적장애(287명) 참가자도 많았다. 하지만 시각 장애인과 청각 장애인 등 각각 31명과 90명에 그쳤다.

그밖에 50% 할인된 가격에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일부 공연 관련 단체나 기획사의 경우 '안 좋은 자리'를 내놓는 경우도 있어 아쉬움을 준다. 문화 바우처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개인 수혜자를 늘리는 게 필요하다. 지난해의 경우 총 수혜자 6천500여명 가운데 개인 수혜자는 522명에 불과했고 단체가 5천여명, 인솔자와 자원봉사자 등이 나머지를 차지했다.

문화 바우처(voucher)란 경제적 사정 등으로 인해 문화예술 프로그램을 보고 즐길 수 없었던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에게 문화적 혜택을 주기 위해 기획된 사업이다. 1인당 5만원(개인별 5천 포인트·프로그램 제공자와 1대 1 매칭을 진행, 실제 혜택은 10만원 상당)이 지원되며 공연, 전시 영화 등을 관람할 수 있다. 또 영유아·장애인·노인 등이 소속된 35인 이상 신청 단체와 이동 거리가 1시간 이상인 경우 '신나는 버스'를 제공하며 장거리 프로그램은 증식(5천원)도 지원한다.

이날 아이들을 인솔했던 실용수씨는 '문화바우처'가 문화 혜택을 받지 못하는 아이들에게 많은 기회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프로그램의 선택 폭이 좁고, 일부 공연은 약간의 성의 없는 태도를 보였던 것 같아 아쉬움을 나타내기도 했다. 또 교통편이 제공되지 않아 아이들과 함께 공연장까지 가는 것도 조금 어려웠다고 말했다.

예산 확대·프로그램 다양화 관련  
지난해 진행된 프로그램은 뮤지컬 '점프'와 영화 '디워' 등 모두 63개였다. 장르별로는 뮤지컬과 영화가 16편으로 가장 많았다. 계층별로는 전체 6천500여명 중 아동이 3천 146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장애인이 998명으로 뒤를 이었다. 장애 장르별로는 정신 지체·발달 장애가 483명으로 호응도가 가장 높았고 지적장애(287명) 참가자도 많았다. 하지만 시각 장애인과 청각 장애인 등 각각 31명과 90명에 그쳤다.

그밖에 50% 할인된 가격에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일부 공연 관련 단체나 기획사의 경우 '안 좋은 자리'를 내놓는 경우도 있어 아쉬움을 준다. 문화 바우처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개인 수혜자를 늘리는 게 필요하다. 지난해의 경우 총 수혜자 6천500여명 가운데 개인 수혜자는 522명에 불과했고 단체가 5천여명, 인솔자와 자원봉사자 등이 나머지를 차지했다.

Table with 2 columns: '참여계층 <2007년>' and '■ 상위 프로그램 (영화제외)'. It lists various categories like '이동', '장애인', '노인', '일반', '인솔/동반자', '합계' and their respective counts. It also lists program titles like '사랑하면 춤을 춰라', '점프(뮤지컬)', '듀엣(뮤지컬)', '인어공주(뮤지컬)', '난생(뮤지컬)', '마리아 마리아', '홍길동전', '연극', '안데르센', '공자와 팔위', '정글북'.

원하는 전시·공연 '골라서' 감상

'문화 바우처'는 저소득 계층과 차상위 계층을 대상으로 다양한 문화 향유 기회를 제공해 주는 프로그램이다. 특히 저소득층 대상 문화 향유 프로그램이 특정 공연이나 전시를 지정해 주는 데 비해 '문화 바우처'는 자신이 원하는 프로그램을 직접 '골라서' 감상할 수 있다는 점에서 눈길을 끌고 있다. 문화바우처는 지난 2006년 시작했다. 한국문화예술위원회가 위탁 사업자를 공모했고, 광주의 경우

개인 수혜자 참여를 높여야

실질, 각종 시설의 경우 문화바우처 이외에도 다양한 공연이나 전시를 감상할 수 있는 기회가 많은데다 바우처를 이용할 때도 단체 관람 때도 교통편을 제공받기 때문에 참여도가 높은 편이다. 하지만 개인의 경우 대상자의 대부분이 장애인·노인·유아 등 회원 가입과 공연 정보 등을 얻을 수

있는 컴퓨터를 사용할 수 없어 시각장애에 놓인대다 이동도 어려워 참여율이 저조한 형편이다.

사회복지협의회 류성봉 사무처장은 "좋은 제도가 있어도 시설이나 단체를 제외하고는 정보를 접할 수 없는 분들이 대부분이라 대리 역할을 할 사람이 필요하다"며 "대상자들과 관계가 긴밀한 봉사자나 사회복지 공무원 등이 적극적으로 나서서 도와주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문화 바우처 회원 되면 1인당 5만원 지원 문진위에 증명 제출

문화 바우처(voucher)란 경제적 사정 등으로 인해 문화예술 프로그램을 보고 즐길 수 없었던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에게 문화적 혜택을 주기 위해 기획된 사업이다. 1인당 5만원(개인별 5천 포인트·프로그램 제공자와 1대 1 매칭을 진행, 실제 혜택은 10만원 상당)이 지원되며 공연, 전시 영화 등을 관람할 수 있다. 또 영유아·장애인·노인 등이 소속된 35인 이상 신청 단체와 이동 거리가 1시간 이상인 경우 '신나는 버스'를 제공하며 장거리 프로그램은 증식(5천원)도 지원한다. 회원이 되려면 우선 회원 대상 인증 절차를 밟아야 한다. 신나는 예술여행(www.art-tour.or.kr)에 회원 등록 → 거주 지역 동사무소에서 증명서(수급 증명서) 발급 → 문진위에 증명서 제출(팩스·우편·방문) → 정회원 인증 → 포인트 지급 → 프로그램 신청 → 관람 → 관람 후 후기 및 의견 제시 과정을 거친다. 프로그램 이용=영화는 주관처와 협약한 영화관(현재 CGV, 롯데시네마, 콜롬버스)에서 사용할 수 있는 '자유 관람권'으로 인터넷 예매와 현장 구입이 가능하다. 단체는 희망 일정과 인원 등을 조정할 수 있다. 공연과 전시는 문진위가 선정한 프로그램에 대해 개인 이용자가 공연 홈페이지를 통해 예매할 수 있다. 이용자들은 홈페이지의 개인별 관리 메뉴(마이 페이지)를 통해 자신의 포인트를 관리할 수 있다. 올해 사업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지만 큰 변화는 없을 것으로 보이며 3월께부터 시작될 예정이다. 문의 062-381-2234~5.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일가공인중개사 (062)234-8216... 상가건물 매매... 토지매매... 전임주택... 기타부동산

현대공인중개사 (062)371-1900... 목욕탕 임대 급히 구할... 시외 농장부지 급히 구할... 상가 건물 매매... 수익성 좋은 원룸

국민공인중개사 011-635-7939... 건물... 땅... 공영 임대... APT1800세대 마트점 특목량

부동산 경매 전문회사 ASSET KOREA... 최고 수익 물건 [공동투자] 하실분을 찾습니다... 근린시설/원룸상업... 아파트/빌라 상담... 상가주택 상담